

참된 성전을 회복한 선동꾼 학개

-복음으로 여는 학개-

학개 2:9, 요한복음 2:19-21

정윤돈 목사님

* **학개: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 **요:19-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의미이다. 나중에 오실 회복될 영광,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보통 재밌고 즐거울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다. 건강을 지키고 개인과 사회가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내 삶에 절대목표가 있을 때 행복하다. 내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 학개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목표가 있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독려해서 무엇인가 하도록 만든다. 실패자는 뭐든지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선동꾼이 아니라 방해꾼이다. 여러분은 방해꾼이 되지 말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램뉘트를 키우는 복음적 선동꾼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 도전하고 함께해야 한다. 참된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목표를 뒤야 한다. 정치선동꾼, 이념선동꾼, 죽이는 선동꾼이 되지 마라. 살리는 복음 선동꾼이 돼라. 학개 선지자는 이 소중한 사역의 선동꾼 역할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두고 세상 것만 관심 있어 했다. 학개는 여기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현장에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멈춘 사람들에게 선동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회 봉사, 전도와 선교를 멈추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동, 설레임,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

가 되어야겠다. 선교현장에 가고 선교하면 돈이 많이 든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에 몇 억을 들여서 도전하는데 우리도 세계복음화에 도전해야한다. 그런 참된 선동꾼이 되도록 도전해야겠다.

오늘은 학개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다.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 또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축제와 절기는 성전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귀환 이후 활동한 선지자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중단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선지자이며 그들을 깨운 영적인 선동꾼이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지 16년 후인 BC.520년에 기록된 말씀이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바사의 다리오 왕이었다.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왕이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온다. 그런데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핑계를 대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문제가 왔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여러분이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성공자다. 다른 사람 일도 내 일처럼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손해보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약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가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하였으나 16년 동안이나 성전건축을 중단했다. 어차피 처음부터 헌신하고 봉사하기 싫었는데 핑계거리가 생기니 중단한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성도들과 같다.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영적으로 메말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참된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전체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단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면 된다.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참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건축과 회복이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망각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세상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 교회의 일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내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행위를 살피라 하신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성전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성공자다.

학개서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성전건축과 회복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전건축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다.

1. 성전 건축에 대한 재앙과 축복에 대하여 학개서의 본문 내용을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1) 첫 번째는 성전건축 중단에 따른 징계의 말씀이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우상에 빠져 있는 12가지 불신자 상태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① 학개서 1장 6절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을 때 받을 징계의 내용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으리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

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통령의 탄핵문제, 고령화문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문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탱해오던 철강산업과 조선산업, 반도체산업, 건설업 등이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해결될까? 교육제도를 개선하면 될까? 복지제도를 더 좋게 만들면 될까?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몰아내면 될까? 과학이나 AI를 발전시키면 될까? 오늘 우리는 학개서에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참된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언약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참된 성전을 건축하고 완전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전이 곳곳에 지어지는 게 한국을 복 받게 만드는 것이다. 금토일시대가 있는 문화센터가 성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후대들이 교회에서 먹고 놀며 교제해야 한다. 교회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다 악하고 타락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교회가 가장 즐겁고 건강하도록 만드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장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 후대를 교회중심의 엘리트로 만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벌고 먹고 마시며 복을 받아야 한다.

(2) 두 번째로 학개서에서는 참된 성전회복이 되었을 때 받을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다. 참된 성전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 곳이 성전이라고 했다. 참된 성전회복은 성도 한 명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을 회복시킬 때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작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학개와 같은 바른 질문을 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개인 개인을 회복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① 학개 2장 4절처럼 나를 든든히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야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스스로 굳게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전도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참된 성공자가 되는 건 내가 스스로 일어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게 행복자다. 이것이 독립의 축복이다.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 남 탓하지 않고 나를 살릴 때 행복한 성전이 된다. 참된 성전인 복음과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스스로 설 수 있고 독립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학개는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족을 위해 고민하지 않았다. 성전을 회복하고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깨닫고 함께 성전을 회복하도록 고민했다. 이 고민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있는 고민되기를 바란다. ②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다. 2장 4절 후반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③ 말씀성취와 성령충만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 학개서 2장 5절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④ 세계를 진동시키는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 학개 2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학개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⑥ 경제적인 축복도 약속하셨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우리는 은금을 좋아하는데 그 은금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금토일시대 세 가지 딸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⑦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영광 뿐 아니라 여러분과 후대는 하나님께로 축복받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⑧ 평강의 언약도 약속하셨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강이 없으면 공허하다. 다 갖고 있는데 소용없다. 다 자녀가 있고 집이 있는 분들인데 공허하다.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 ⑨ 오늘부터 당장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학개 2장 19절 후반절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⑩ 우리를 대적하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변화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학개 2장 22절에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없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없드려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 언약을 붙잡은 후로 시진핑, 트럼프가 무섭지 않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강대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회복은 무엇이고 그러한 성전은 어떻게 재건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

(1) 참된 성전회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① 참된 성전회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만 되면 끝이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며 우주만물을 움직이는 잔존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야 한다. ② 참된 성전회복운동이란, 모든 지역과 가정과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다락방운동, 미션홈운동, 지교회운동이다. ③ 참된 성전운동이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적인 문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산업선교요, RUTC운동이다. 문화정복에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게 참된 성전회복운동이다.

(2) 그러면 어떤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건축해야 할까?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로컬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 파라고회를 회복시켜야 한다.

(3)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을까? 62가지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 전도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21가지 복음적 내용과 삶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9가지 배려를 배워야 한다. 20가지 성경적 전도방법을 배워야 한다. 7가지 영적 서밋의 교육으로 후대를 살려야 한다. 5가지 기도가 가장 중요한 키이다. 먼저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다. 이게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다 틀린 기도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기도다.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 집중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다. 또 답을 얻고 치유하는 기도 다른 길로 치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다. 또 복음과 전도운동을 지속하려면 말씀과 균형되는 기도이다. 이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너무나 모든 것이 중지되고 무너진 이때에 선지자 학개와 같이 복음집중, 말씀집중, 나의 땅끝집중을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을 제자로 삼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학개의 마음과 열정과 중심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학개와 같은 중심을 갖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현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